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주님 부활 대축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4월)

복음화 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부속가 주보 4면 참고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성체 후 묵상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고쳐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굳게 믿고 이웃에게 전합시다.

2022년 4월 17일(다해)

주님 부활 대축일

♣ EASTER HUMANITY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 ♣

근래 몇년간 우리는 부활 대축일을 기념하는 시기, 사회적 재난이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산불피해가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은 환경이나 보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간성에 반하는 폭력이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쟁은 부활의 평화, 기쁨과는 정반대의, 인류의 패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성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빛은 영원하지만, 전쟁은 어둠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전례는 인류애의 또 다른 측면을 선포합니다. 부활 성야의 거룩한 찬송은, “죽음의 권세에서 돌아오신 당신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평화의 빛을 비추시며,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인성(인류애적 사랑)을 포용하는 것은 분명 모든 시대, 특히 우리 시대의 끝없는 과제입니다. 예수회 회원이며 우크라이나 군종사제인 Andriy Zelinskyy 신부는 현재의 전쟁에 대해 “잔인하고 유럽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고 무의미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폭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이 곧 종식되고, 결코 악이 만연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희망을 위한 기도는 실천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우리 대교구 안에서 우크라이나 가톨릭 공동체를 이끄는 Wally Kalinecki 신부와 러시아 정교회 Alexander Morozow 신부가 더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 두 공동체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교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 Kalinecki 신부에게 우리 대교구가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트라우마)을 받은 가족들에게 적절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렸습니다.

Zelinskyy 신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일어납시다...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인류애라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인류애, 하느님의 선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그저 감상적인 종교적 경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성의 본질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입니다.

바로 사도가 선포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콜로 3,4)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2022년 부활시기

크리스토퍼 프라우즈 대주교

※ 크리스토퍼 주교님 부활절 메시지 및 영상: <https://www.catholicvoice.org.au/easter-humility/>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 동참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가정 및 개인별로 정성스럽게 모으신 금액을 4월17일 부활절 미사 중 봉헌할 예정입니다. 봉헌된 모금액은 우리 공동체의 사회복지 예산 일부와 함께 후원기관에 전달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카리타스 모금 운동: <https://tinyurl.com/2zpa4txv>

※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비니스 모금 운동: https://www.vinnies.org.au/page/Find_Help/Flood_appeal/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훈화

우크라이나 전쟁 “부활 맞아 휴전합시다. 재무장 아닌 평화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4월 10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를 거행하신 후 삼종기도 훈화를 통해 “우리 눈앞에서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과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잔학행위”에 대한 생각을 전하셨습니다. 덧붙여, 교황님께서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잃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중의 선익”을 우선하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호소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며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 “극악무도한 잔학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초대하셨습니다.

훈화 발췌문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이지, 누군가에 대한 승리라거나 다른 누군가를 거슬러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쟁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나요? 그렇게 하면 잃기만 할 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도록 두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생명, 사랑, 평화가 다스리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절을 기해 휴전에 들어갑시다. 휴전은 재무장과 전투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휴전입니다. 민중의 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는 진정한 협상을 통해 평화로 이어지는 휴전 말입니다.

※ 기사: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04/papa-angelus-domenica-palme-ucraina.html>

캔버라·골번 대교구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 안내

일시: 2022년 4월 24일(부활 제 2주일) 오전 11시 (※당일 우리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장소: St. Christopher’s Cathedral, Corner of Canberra Avenue and Furneaux St, Forrest ACT 2603

※ 미사 후 다문화 공동체별로 음식 나눔이 있을 예정이고, 다문화 미사 참석 복장은 한복을 권장합니다.

2021년 다문화 미사 후기: <https://www.catholicvoice.org.au/hidden-treasures-thanked-for-their-riches/>

2022년 어머니의 날 행사 참가자 모집

올해 어머니의 날(5월 8일 주일)을 맞이해 여성 교우님들을 위한 와이너리 점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소공동별로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우님들은 서은주 데레사 자매님(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성 교우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 5월 6일(금요일) 오후 12시, Four Winds Vineyard

점심(피자) 및 차량 지원(성당에서 함께 출발, 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④
 기후위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⑧
 문풍지 같은 단열재로 열 손실 방지하기
 → 11,9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가톨릭 전례 다이어리]

황준호 베드로 신부 | 이영준 모이세 신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황준호 신부가 성 주간을 정리해드립니다!

성주간, 성삼일 | 중세 라이브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일 미사 참례자수

4월 3일	성인 30 아이 5	4월 10일	성인 28 아이 8
-------	------------	--------	------------

□ 우리들의 정성 (4월 9일(토)~4월 15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천주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허준						
교무금 : \$520 (10가정) / 봉헌금 : \$18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4월 24일, 부활 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다문화 미사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7일) 요한반→(24일) 다문화 미사 (음식나눔 후 뒷정리 동참)→(5월 1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4월 17일) 모든 반(※ 부활 대축일 음식나눔) →
 (5월 1일) 루카반 → (15일) 마르코반 → (29일) 마태오반

□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 성당 출입 시 손 세정 및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성당 출입 시 QR 코드 스캔, 체온측정 중단)

♡ 한상지 칼로첼로(18일), 백세현 레오 학생(19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